

광주시 계약심사제 예산 절감 '톡톡'



지난해 460건 2091억 사전 심사해 110억 아껴 2008년부터 1177억 낭비 막아 SOC 등에 투입

광주시가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 심사제를 통해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18일 “지난해 원가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를 통해 예산 11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계약심사제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예산 1177억원을 절감했다. 시는 지난해 시와 자치구, 공공기관 등

이 심사 요청한 공사 306건 1625억원, 용역 98건 401억원, 물품구매 56건 65억원 등 총 460건에 2091억원의 설계금액에 대해 계약심사를 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시는 계약심사를 위해 광주시 실정에 맞는 심사기법을 개발하고 사업내용이 현장 특성에 적합하도록 공법 등을 선택했다. 원가적정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쳐 예산 절감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됐다. 박옥창 광주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자세한 원가를 분석해 불필요한 공정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U대회조직위 '캘리그래피 새해소망' 인기몰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7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서 백화점 방문객들에게 '캘리그래피(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로 새해소망 써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모집 3.4 대 1...이례적 인기 이유는?

막강 권한·고급 정보 등 이득 관련 업계와 유착 경계해야

광주시가 공개 모집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거 몰리면서 새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공모 결과 15명을 뽑는 위촉직에 52명이 신청, 경쟁률이 3.4대1을 넘었다. 상당수 위원회가 구성원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가자들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 위원회는 도시계획과 아파트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업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최고급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점이 위원회 참여의 가장 큰 이점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경력 관

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나 설계 및 용역회사 등 관련 업계의 이해 관계와 얽힐 수도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는 응모자 중 건설업체나 용역회사 관계자 등 제척 사유 여부를 따져 위원들을 위촉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구 “참신한 주민 아이디어 주세요”

자유 주제·대상 제한 없어 금상 50만원 등 상금 수여

광주시 서구는 18일 “주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을 포함한 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일상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까지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만족도, 행정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내용이면 된다. 서구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서면심사를 하고 13일에는 예산을 통과한 안건

에 대해 제안자가 직접 발표하고 심사하는 본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금상 1편은 50만원, 은상 2편은 각 30만원, 동상 3편은 각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들도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선 물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홈페이지(seogu.kwangju.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062-360-7517) 또는 전자메일(360sg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실(062-360-7038)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마을학교 운영 기관·단체 공모

내달2일까지 우편·방문접수

광주시는 18일 “마을 리더를 양성하는 광주마을학교를 운영할 기관·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개설된 광주마을학교는 마을 활동가와 주민 등 1453명이 참여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광주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정, 중견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고급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상별, 수준별 교육과 주민의 자발적인 동기 부여 및 참여를 촉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마을 활동가와 전문가 등에 대한 단계별 교육도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마

마을학교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기존 마을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마을학교를 운영할 만한 조직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2월2일까지이며, 광주시 참여혁신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2월 중 심사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 참여혁신단 마을만들기정책팀(062-613-6232)으로 하면 된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올해 광주마을학교에서는 이론과 생생한 현장실습을 병행한 교육, 유형별 사례연구 등을 통해 우수한 마을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광주정신에 입각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법인 모집

37개 사업 대상 14억 규모

광주시는 18일 “2015년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민간단체·법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사업은 민주화운동선양 공익사업, 취약계층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자연환경보전지원, 식생활교육지원 등 37개로 총 14억원 규모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개하고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www.k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오는 30일까지 공모사업 소관 실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25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움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